

한국 국내의 6·25전쟁 연구 동향

李完範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1. 들어가는 말
2. 민간차원 연구의 태동: 1970년대 말
3. 전통주의적 연구의 조직화: 1980년대 후반
4. 수정주의적 경향의 등장: 1980년대
5. 후기수정주의적 종합의 모색: 1990년대 초
6. 1990년대 말 탈냉전기의 새로운 연구경향으로서의 다국사료
교차분석: 세대교체와 수정주의-아카이브 결합
7. 6·25전쟁 50주년 기획
8. 과거사로서의 전쟁 연구: 21세기적 조류, 사회사와 인류학적
접근, 사람과 전쟁
9. 맺 음 말: 미래 전망

1. 들어가는 말

기존 6·25전쟁 연구는 주로 정치적 시각으로 문제를 바라보았다. 클라

우제비츠(Karl von Clausewitz)의 ‘전쟁은 정치의 연장’이라는 말을 인용하지 않더라도 전쟁은 고도의 정치적 행위이므로 정치학적 연구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그러한 편중은 새로운 문제를 제기하게 했다.

1960년대 이래 주로 관변에서 이루어졌던 전투로서의 전쟁 연구(전투사)는 6·25전쟁 연구 발전에 일정한 기여를 한 것이 사실이지만 전쟁을 단순한 군사적 전투행위로 보는 환원적 인식에 매몰되게 하기도 했다. 또한 연구 주제 면에서 1980년대 이후 수정주의의 직·간접적 영향아래서 이루어진 6·25전쟁 연구 붐은 6·25전쟁의 기원과 발발에 상대적으로 관심을 두게 만들었다.¹⁾ 수정주의자 브루스 커밍스는 6·25전쟁이 내란과 혁명으로서 시작되었다고 쓰고 있으며²⁾ 메릴은 남한에서 1948년 정부수립 이후 빈

1) 박명림, 『한국전쟁의 발발과 기원』, 전2권(서울:나남, 1996). 이는 학위논문을 증보한 저서이다.

2) Bruce Cumings, *The Origins of the Korean War*, vol. I(Princeton: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1), p. xxi. 그렇지만 커밍스가 외세의 한민족에게 전가시키는 내인론자는 아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6·25전쟁의 원초적 원인을 제공한 미국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커밍스를 내전론자로 인식하는 것은 지나친 단순화일 가능성이 있다. 커밍스는 6·25전쟁을 내전이자 혁명전으로 보지만 6·25전쟁의 기원을 외부로부터의 개입으로부터 찾고 있으므로 내인만을 유일한 원인으로 강조하는 그런 식의 내인론자는 아니다. 이완범, “한국전쟁연구의 국내적 동향:그 연구사적 검토”; 손호철 외, 『한국전쟁과 남북한사회의 구조적 변화』(서울: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1991), pp. 225-227 (한편 이완범은 위의 글 p. 227의 각주 57에서 “커밍스는 전쟁이 내인에 의해 일어났다고 주장한 곳은 없다”고 단정했는데, 이것은 수정되어야 한다). 수정주의에 대비되는 전통주의자들이 국제전적인 요소를 강조한데 비해 커밍스는 6·25전쟁이 내란으로 시작되었음을 강조했을 뿐이다(또한 콜코 등의 초기 수정주의자들도 국제적 환경에 비중을 두었다). 커밍스는 전쟁이 발발할 때 이미 강대국이 각축을 벌이고 있었음을 지적하고 있다. 커밍스는 내전이 있게 한 기원으로 미-소의 분할점령을 지적하므로, 전쟁의 보다 근본적이며 원초적 원인은 내인이 아닌 국제적 원인에 있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다. 따라서 커밍스는 전통주의자들이 내인에 대해 소홀히 했던 것에 주목했을 뿐 6·25전쟁이 오로지 내전의 측면만으로 가지고 있는 시종일관한 내전이라고 단정하지는 않았으므로 스투이 커밍스를 내전론자로 치부하는 것은 옳지 않다. 커밍스, 『한국현대사』(서울:창작과 비평사, 2001), p. 333에서 내전은 다양한 원인으로 일어나며 먼저 한국을 아무 생각 없이 갈라놓고 식민지 정부기구를 재건한 미국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그

발하였던 빨치산과 국군과의 비정규전적 내전에 인민군이 개입함으로써 내전적 상황이 끝났다고 주장했다.³⁾ 따라서 6·25전쟁의 내전적 요소를 중시하는 수정주의자들은 1950년 6월 이후 6·25전쟁이 본격적으로 전개된 상황보다 그 이전에 6·25전쟁이 배태되었던 상황적 조건에 더 큰 관심을 가졌다.⁴⁾ 그런데 이러한 기원에 대한 상대적 강조를 문제 삼은 학자들은 전쟁의 전개과정에 대한 관심을 돌릴 것을 주장했으며 결국 기원뿐만 아니라 전개과정 등도 다루어지기 시작했다.⁵⁾ 또한 1990년대 이후에는 정치적 차원뿐만 아니라 사회적 영향, 사회사적 연구 등이 천착되기 시작했다. 사람들간의 싸움이었던 전쟁 연구에서 사람의 생생한 목소리가 빠져 있으며 6·25전쟁은 박제화된 사실로 전쟁기념관에 처박혀 있다는 반성이 일어나기 시작했으며 이는 6·25전쟁의 영향에 대한 연구 과제 설정과 관련이 있다.

렇지만 그는 위의 책, p. 369와 p. 3 등에서 6·25전쟁이 내전임을 명백히 주장하기를 했다. 커밍스는 위의 책, pp. 417-418에서 이 전쟁은 내전이었지만 순전히 한국인들끼리의 내부충돌은 아니었다고 평가했다. 내전설을 주장했던 메릴도 내전적 요소와 국제적 요소를 모두 전쟁원인으로 고려하면서 남북한간 전쟁전의 갈등을 고려해야 전쟁의 기원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다고 외인론자들의 주장이 주류였던 학계에서 주장하였을 뿐이다. John Merrill, *Korea: The Peninsula Origins of the War*(Newark, Delaware: University of Delaware Press, 1989), p. 54.

- 3) John Merrill, *Korea: The Peninsular Origins of the War*(New York: University of Delaware Press, 1989); 존 메릴, 『새롭게 밝혀낸 한국전쟁의 기원과 진실』, 이종찬 역(서울: 두산동아, 2004). 이러한 남쪽에 한정된 '내'의 범위에 비하여 시몬스식 내전(civil war) 개념에서 내전은 남북간의 내전이다. Robert R. Simmons, *The Strained Alliance: Peking, P'yongyang, Moscow and the Politics of the Korean Civil War*(New York: The Free Press, 1975).
- 4) 커밍스는 1950년 6월 25일은 한국전쟁의 시작이 아니라 1945년 해방 이후부터 시작되었던 갈등에 대단원(denouement)의 막이 이루어진 계기라고 주장하기까지 한다. Bruce Cumings, "Introduction: The Course of Korean-American Relations, 1943-1953," Bruce Cumings, ed., *Child of Conflict: The Korean-American Relationship, 1943-1953*(Seattle: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1983), p. 41. 1950년 6월 이전에 이미 10만여 명의 인명이 손실된 한반도에서의 상황에 주안점을 둔 메릴은 전쟁은 1948년 초부터 1950년까지 점차 고조-에스칼레이션되었다고 주장한다.
- 5) 김영호, 『한국전쟁의 기원과 전개과정』(서울: 두레, 1998). 한편 박명림은 『한국 1950 전쟁과 평화』(서울: 나남, 2002)에서 1951년 1·4후퇴까지 다루고 있다.

이 글에서는 한국인 학자들이 주로 한국에서 발표한 연구물들을 중심으로 6·25전쟁 연구 55년사를 개괄해 보고자 한다.⁶⁾ 한국인들에 의하여 본격적이면서도 학문적인 연구가 이루어진 것은 1970년대 이후이다. 전쟁 직후인 1950년대에는 대한민국 국방부와 육군본부 등에 의하여 연감과 전사 등이 편찬되었을 뿐, 학문적인 업적은 전무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1970년대 이전 국내에서는 ‘남침의 진상’을 밝히려는 의도에서 쓴 미국인 종군기자 등의 회고담류가 다수 번역되었다.

또한 연구 초기에는 주로 미국 자료를 발굴했으며 중국과 러시아에도 자료가 산재되어 있을 것으로 파악하면서 전쟁의 핵심당사자인 남북한의 자료는 아예 없는 것으로 치부했다. 미 자료 중 비밀문헌은 1970년대에야 기밀 해제되었으므로 이 시기까지 국내의 연구는 미진했다. 따라서 1980년대 이전까지 6·25전쟁 연구의 중심은 미국학계에 있었다.

그런데 6·25전쟁에 대한 학문적 연구가 시작된 것은 1960년대였다. 이 시기에 미국에서 공부한 한국인 학자들에 의하여 6·25전쟁이 국제정치적인 접근법으로 논의 연구되기 시작했다. 그 대표적인 인사로 두 명을 열거할 수 있다. 우선 김명희 교수는 미국 New York University에서 정치학 박사학위 논문 “Prisoners of War as a Major Problem of the Korean Armistice, 1953”(1960)을 작성하여 선구적인 업적을 일구어 내었다. 그는 당시 국제사회에 하나의 중심적인 이슈였던 이승만의 반공포로 석방문제를 현실주의적 시각에서 분석했다.

또 다른 한 사람은 소진철 교수인데 그는 미국 University of Oklahoma에서 정치학 박사학위 논문 “Some Causes of the Korean War of 1950:

6) 기존 연구사로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이완범, “한국전쟁연구의 국내적 동향”, 손호철 외, 『한국전쟁과 남북한사회의 구조적 변화』(서울: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1991), pp. 203-245; 이완범, “한국전쟁 연구 50년과 과제”, 『경제와 사회』 제46호 (2000년 여름), pp. 8-29; 김기조, “한국전쟁의 최근 연구동향: 탈냉전 후 신경향의 문헌을 중심으로”, 『외교』 제54호(2000년 7월), pp. 121-130. 김기조 박사는 후자의 글에서 스탈린주도설과 모택동의 실수 등에 관해 논의했다.

A Case Study of Soviet Foreign Policy in Korea(1945~1950) with Emphasis on Sino-Soviet Collaboration”(1963)을 통과시켰다. 이 논문의 논지를 발전시켰던 후속 연구 “The Role of the Soviet Union in Preparation for the Korean War,” *Journal of Korean Affairs*, vol III, no. IV(January 1974); 「한국전쟁과 중·소동맹의 대일 포위전략」, 외교안보연구원, 1984. 11; 「소련·중공·북한의 한국전쟁 음모」, 김철범 (편), 『한국전쟁』(서울: 평민사, 1989); 『한국전쟁의 기원』(익산: 원광대학교 출판부, 1996) 등에서 그는 대담한 가설인 ‘음모설’을 지속적으로 제시했다. 6·25전쟁은 기본적으로 소련과 중공·북한의 음모에 의하여 일어났다는 것이다. 그의 주장에 의하면 1950년 동북아시아에 대한 소련의 설계들 가운데 하나는 일본을 남·북으로 포위함으로써 우선 미국의 대일 단독강화를 저지하고 궁극적으로는 일본을 적화하는 것이었으며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일본 공산당을 개조해 나갔다는 것이다. 소련의 그리고 중소동맹의 그러한 설계, 즉 ‘국제공산주의자들의 대전략’은 소련의 6·25전쟁 음모와 연결되어 있었다고 그는 주장한다. 6·25전쟁 승리를 통해 그러한 설계를 실현시키고자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6·25전쟁의 ‘실패’로 이 설계가 무산되었고 이 음모는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1960년대 냉전시대 상황의 산물이었던 이들 연구자들은 당연히 미국의 주류적 전통주의 전통에 의지하고 있었으며 불모지 상태였던 한국학계에 진출한 이후에는 그들의 학문적 성과를 이어가기에 여러 한계가 있었다. 또한 1960년대 후반에는 학위논문이 산출되지 않았으므로 1960년대에도 1950년대의 학문적 공백이 대체로 이어졌다고 평가할 수 있다.

2. 민간차원 연구의 태동: 1970년대 말

민간 차원에서 6·25전쟁이 본격적으로 연구된 것은 6·25전쟁이 끝난

지 20여 년이 지난 1970년대 중반 이후이다. 그런데 김점곤은 관변적이며 천편일률적인 전사의 차원을 처음으로 뛰어넘어 새로운 영역을 개척한 육군장군(6·25전쟁 당시 육군본부 정보국 차장을 역임함) 출신의 교수이다. 김점곤은 해방직후에 공산주의자로 활동하다 전향했던 인사들(특히 『실록 남로당』을 1975년 신현실사에서 간행한 김남식)과의 광범위한 인터뷰를 토대로 여러 자료를 동원하여 1972년 경희대학교에서 법학박사학위 논문 「한국에 있어서의 공산주의투쟁형태연구, 1945-1950: 특히 무장투쟁을 중심으로」를 작성했다. 1973년 박영사에서 『한국전쟁과 노동당전략』으로 간행되었는데, 6·25전쟁을 빨치산투쟁의 연장선상에서 파악하는 내전적 인식을 국내외 학계에 심어준 최초의 저작이다. 당시로서는 금기시되었던 분야였지만 자료에 토대를 둔 엄밀한 실증이 이러한 금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이 저작도 6·25전쟁 연구가 활성화된 1970년대 말 이후에야 비로소 본격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했다. 1989년에 발간된 그의 「남로당 폭력혁명의 연장선상에서 일어난 한국전쟁」, 김철범 (편), 『한국전쟁: 강대국 정치와 남북한 갈등』에서 내전적 시각이 보다 명확화 될 수 있었던 것이다.

1970년대까지 군출신 인사만의 전유물이었던 6·25전쟁 연구가 민간차원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기여한 사람들은 외국에서 학위논문 등을 작성하고 귀국한 학자들이었다. 김학준 교수는 1970년 미국 Kent State University에서 석사학위 논문 “The Korean War and China: Sino-North Korean Relations before the Outbreak of the Korean War”를 작성했을 정도로 일찍부터 6·25전쟁을 연구했다. 박사 학위논문은 6·25전쟁에 관한 Monograph가 아니었지만 계속 6·25전쟁에 관한 논문을 산출하여 군의 전유물이자 학문적 연구의 불모지였던 이 분야를 활성화하는데 기여했던 학자 중의 한 사람이다. 그는 1970년대 중반 귀국하여 논의조차 금기시된 상황에서 여러 가지 가설들을 소개하면서 6·25전쟁에 대한 논의자체를 활성화시켰다. ‘한국전쟁의 기원’ 문제에 관하여는 일찍이 1975년에 ‘남침설’

뿐만 아니라 ‘북침설’과 남북한 모두 전쟁을 준비했던 상황에서 북한이 선제공격을 개시했다는 ‘중간설’을 ‘흥미 있는 추론에 지나지 않는다’는 단서를 붙이면서 ‘학문적으로’ 제시하여⁷⁾ 한국학계에 논쟁을 불러 일으켰다. 전통주의가 지배했던 한국학계에서 이 분야에 관심을 가지려 했던 연구자들은 두 가지 갈래로 영향을 받았다. 먼저 남침설의 자료를 더욱 확고하게 수집하여 그 논의를 엄밀화시켰던 부류가 하나 있었다. 다른 부류는 미국인들 사이에서도 북침설을 언급하는 학자가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아 수정주의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던 연구자들이다. 두 갈래로 영향을 서로 다른 미쳤다고 해도 결국 김교수의 저작은 연구 분위기 조성에 기여했다고 평가될 수 있다. 그는 이후 6·25전쟁 연구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논지가 비슷한 글을 반복적으로 발표했으며 포괄적 저서인 『한국전쟁』(서울: 박영사, 1989)을 출간하는 결실을 보게 된다.⁸⁾

“한국전쟁을 겪은 당사자인 우리 한국인의 손에 의해 국내에서 출판된 단행본의 수는 매우 적다”는 상황평가 아래 해외의 저술들이 집중적으로 소개되는 상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저자 자신이 기왕에 발표한 글을 중심으로 편집한 책이 바로 이 단행본이다. 원인·과정·휴전·영향을 부제로 원인에 관한 글 3편(한반도의 분단과정: 한국전쟁의 한 원인, 한국전쟁의 기원, 한국전쟁의 개전에 관한 북한 정치파벌의 입장), 과정에 관련된 글 1편(한국전쟁의 시기에 있어서 남북한 각자의 동맹국들과의 관계), 휴전 2편(한국전쟁 기간에 제기된 휴전안들의 내용과 그 의미, 한국정전협정의 성립과정), 결과 1편(한국전쟁이 국제정치와 남북한에 미친 영향) 등 총 7편의 글이 수록되어 있다. 필자 자신은 국제전의 성격과 내전의 성격을 함께 지닌 전쟁으로 보아 ‘전통주의적 해석과 수정주의적 해석을 배합하는 입장’이라고 주장한다.

7) 김학준, 「한국전쟁 문헌 해제」, 『서울평론』 제84·85·87호(1975년 6월-9월).

8) 현재 『한국전쟁: 원인·과정·휴전·영향』, 제3개정·증보판(서울: 박영사, 2003)을 간행했다.

라종일 교수는 1972년 영국 Cambridge University에서 박사 학위논문 “Britain and the Korean War, 1950~1954”를 작성했다. 그는 영국 외무성의 비밀문서를 광범위하게 활용하여 6·25전쟁의 발발에서부터 1954년 제네바회담까지를 다루었다. 그는 이후에도 주로 6·25전쟁을 영국 혹은 영·미 관계와 연결시키는 저작들을 양산했다.⁹⁾

6·25전쟁 연구의 1970년대 선구자의 한 사람으로서 지적해야 할 인사는 박두복 교수이다. 그는 중화민국 문화대학에서 취득한 정치학박사 논문을 『中共參加韓戰原因之研究』라는 제목으로 臺北의 黎明文化事業公司에서 1975년에 출간했다. 그는 중공과 모택동에 대한 스탈린의 의심을 풀어주는 것이 중국이 장래를 위해 긴급하다는 판단에서 참전했다고 보았다. 이 논문의 중요 부분은 한국과 미국학계에 연속적으로 공간되었다.¹⁰⁾

- 9) 「한국동란과 영국」, 『군사』(1983년 7월); “Political Settlement in Korea: The British Views and Policies with regard to the Internal Political Arrangements in Korea in the Autumn of 1950,” 『국제정치논총』 제23집(1983); “Political Settlement in Korea: British Views and Policies, Autumn 1950,” James Cotton and Ian Nearly, eds, *The Korean War in History*(Manchester, GB: Manchester University Press, 1989); “Special Relationship at War: The Anglo-American Relationship during the Korean War,” *Korea and World Affairs*, vol. VIII, no. 2 (Summer 1984); 라종일 편, 『증언으로 본 한국전쟁』(서울: 예진, 1991).
- 10) 「중공의 한국전 개입」, 김철범 편, 『한국전쟁: 강대국 정치와 남북한 갈등』(서울: 평민사, 1989); 「중공의 한국전쟁 개입의 원인에 관한 연구」, 한국전쟁의 정치·외교사적 고찰: 한국정치외교사학회논총 제5집(서울: 평민사, 1989); “China and the Korean War,” Chae-Jin Lee and Doo-Bok Park, *China and Korea: Dynamic Relations* (Stanford: The Hoover Institute, 1996); “중국의 한국전쟁 개입원인”, 한국전쟁연구회 편, 『탈냉전시대 한국전쟁의 제조명』(서울: 백산서당, 2000). 중국 참전에 대해서는 이완범, 「중국의 한국전쟁 참전: 한국의 연구 성과, 자료와 논점」, 『한국전쟁 중 한국의 참전전략과 포로문제』, 한-중 국제학술세미나, 2001년 10월 25일, 39-60쪽과 최근에 간행된 김경일(金景一), 『중국의 한국전쟁 참전 기원: 한중관계의 역사적-지정학적 배경을 중심으로』, 홍면기(洪冕基) 역(서울: 논형, 2005)와 이 책의 서평인 이완범의 「한-중관계의 역사적 배경과 6·25전쟁」, 『정신문화연구』 제28권 제1호(2005년 봄), 251-256쪽을 참조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2000년 10월 중국단둥에서 열린 제1차 한·중 한국전쟁국제학술회 자료를 묶어 놓은 박두복 편, 『한국전쟁과 중국』(서울: 백산서당, 2001)이 있다.

1980년 11월 6·25전쟁 연구에 관한 한 ‘지적 충격’을 가져다주었던 서울 언론문화클럽의 『계간 현대사』 창간호 발간과 그 즉시 폐간사건이 일어났다.¹¹⁾ 이는 1980년대 중반까지 냉전적 사고가 지배적이었던 사회상황에 맞물려 있던 주류적 학계의 연구가 거의 공백상태로 남아있던 상황을 표출시켜 주는 하나의 상징적 사건이었다.

3. 전통주의적 연구의 조직화: 1980년대 후반

김철범 교수는 한국내의 주류적 연구를 집약시키는데 기여한 학자인데¹²⁾

- 11) 수록 논문은 다음과 같다. 최정호, 「한국 ‘현대사’와 한국전쟁」; 차하순, 「현대사의 과제와 방법」; 정일영, 「한국전쟁의 국제법적 성격」; 박용옥, 「세계대전 속에서의 한국전쟁」; 한배호, 「1950년 전후의 미 극동전략」; 한승수, 「한국전쟁과 세계경제」; 이재원, 「미국 주요언론에 비친 한국전쟁」; R. J. 렘멜, 「제2의 ‘한국전’ 가능성에 대하여」; 오꼬노끼 마사오, 「전이하는 한반도의 전략적 가치: 1942년에서 1950년까지」; 이상우, 「6·25와 한국소설의 관점」; 정진위, 「북한·중공·소련의 삼각관계」; 김남식, 「남과 북의 ‘조선로동당」; 김병익, 「6·25와 한국소설의 관점」; 김학준, 「해방3년사와 한국전쟁에 관한 연구동향: 저술과 자료를 중심으로」; 김경동, 「전쟁사학회하 시론: 한국전쟁의 사회적 충격」; 「한국전쟁일지」.
- 12) 1984년 SUNY at Buffalo에서 “U. S. Withdrawal Decision from South Korea, 1945~1949”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던 그는 『국제정치논총』 제24권 1집(1984)에 “U. S. Withdrawal Decision from Korea, 1945~1949: Bureaucratic Perspectives”와 『신동아』 1986년 6월호에 「6·25 전 주한미군 철수의 내막」을 각각 발표했다. 또한 그는 「북한의 남침을 빚어낸 미국의 철군정책」, 김철범 편, 『한국전쟁: 강대국 정치와 남북한 갈등』(서울: 평민사, 1989); 「한국전쟁과 미국의 외교정책: 철수, 참전, 복진, 휴전 결정을 중심으로」, 김철범 편, 『한국전쟁을 보는 시각』(서울: 을유문화사, 1990); 「한국전쟁 전야에 있어서 미국의 대한정책: 포기나 보호냐」, 김철범·제임스 매트레이 공편, 『한국과 냉전: 분단과 파괴와 군축』(서울: 평민사, 1991) 등을 연속적으로 발표했으며, 철군을 다룬 위와 같은 글들을 시기적으로는 휴전까지 확장하여 『한국전쟁과 미국』(서울: 평민사, 1990)을 간행했다. 또한 『진실과 증언: 40년 만에 밝혀진 한국전쟁의 진상』(서울: 을유문화사, 1990)을 편집했는데, 제1부는 소련측 증언, 2부는 재소고려인의 증언, 3부는 중국측 증언, 4부는 프랑스·재미학자의 연구 등 새로운 자료를 집중 수록했다.

그는 1987년 5월 이후 “만시지탄이긴 하지만 이제 한국전쟁에 관한 연구를 외국학자에게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우리들 스스로 평가하고 정리해야 할 시점에 이른 것”이라는 판단 속에서 ‘한국전쟁연구회’를 발족했다. 6·25전쟁과 관련된 국내 학자들이 중심이 되어 구성된 이 학회는 국내에서 학술 회의를 개최하여 6·25전쟁 연구의 중심을 한국으로 만들려 했고, 외국의 권위 있는 학자들과의 학술 교류를 도모했다.

이 학회는 1987년 6월 15~16일간 제1차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했고 이 결과물들은 1988년에 국토통일원에서 『한국전쟁전후 민족 격동기의 재조명』으로 간행했으며 전술한 김철범 (편), 『한국전쟁: 강대국 정치와 남북한 갈등』(서울: 평민사, 1989)으로 재출간했다. 또한 1989년 6월 22일부터 23일까지는 한국인 학자들만 참석하여 제2차 한국전쟁 학술심포지엄을 개최했는데 수정보완된 발표논문들은 1989년 국토통일원에서 『한국전쟁과 휴전체제』로 출간되었다.¹³⁾

한국전쟁연구회는 1990년 6월 14일부터 15일까지 John Merrill, James Matray, William Stueck Jr., Rosemary Foot 등 국외의 권위자까지 포괄하여 “한국전쟁과 한반도의 평화정착”(Division, Destruction and Disarmament)이라는 주제로 제2차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했다.¹⁴⁾

13) 이 책의 목차는 다음과 같다. 서대숙, 「한국전쟁의 성격」; 김유남, 「한국전쟁과 동북아 냉전체제」; 정토응, 「한국전쟁과 미국의 제한전쟁」; 소진철, 「한국전쟁과 일본 공산당의 개조」; 박두복, 「한국전쟁이 중공정치에 미친 영향」; 라종일, 「제네바 정치회담: 회담의 정치」; 김학준, 「통일사적 측면에서의 한국전쟁」; 안병준, 「한국전쟁의 유산과 북방정책」; 온창일, 「한반도에서의 핵의 역할」; 김부기, 「남북한의 군비통제」.

14) 발표논문은 다음과 같다. 김학준, 「6·25연구의 국제적 동향」; James Matray, 「일종의 내전: 한국전쟁의 국제적 기원」; John Merrill, 「한국전쟁의 기원: 대답없는 질문」(주한 미국공보원이 1990년 7월에 간행한 『시사평론』 제32호에 번역됨); 小此木政夫(오코노키 마사오), 「북한정권의 수립」; William Stueck Jr., 「소련과 한국전쟁의 기원」; Károly Fendler, 「동구제국, 특히 헝가리의 국내외 문제에 있어 한국전쟁(1950-1953)의 역할: 헝가리의 지원형태」; 김철범, 「한국전쟁 전야에 있어서 미국의 대한정책」; Michael Schaller, 「맥아더 장군: 중국문제, 정책갈등, 한국전쟁」; Rosemary Foot, 「적과의 협상과 우방과의 협상: 휴전회담에서의 화해정치」; Jonathan D. Pollack, 「중국, 중소동

한편 한국정치외교사학회에서는 1987년 연중 내내 그리고 1988년 전반기에 여러 번에 걸친 논문발표를 진행하여 1989년 평민사에서 『한국전쟁의 정치외교사적 고찰: 한국정치외교사학회논문총 제5집』을 간행했다.

또한 전쟁기념사업회는 1990년 6월 25일부터 27일까지 「한국전쟁의 역사적 재조명: 한국전쟁 40주년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했다. 발표자는 다음과 같다. Philip West, 김학준, 신복룡, John E. Wilz, Kathryn Weathersby, 허만호, 라종일, Harold C. Hinton, Alexander V. Kovalykov, 조영환, Roger Dingman, 온창일, 김계동, A. Farrar-Hockley.

한국국제정치학회는 전쟁기념사업회의 후원을 받아 1990년 6월 대구에서 「한국전쟁 40주년 기념 하계특별지방학술회의」를 개최했는데 『한국전쟁의 역사적 재조명』이라는 제목으로 국제정치논총 특집호를 1990년 10월에 간행했다.

또한 동아일보사의 현대사 연구 계획에 따라 기획된 『현대사를 어떻게 볼 것인가』 2권(1989)의 제4부가 「6·25의 국제적 성격과 국내적 영향」이다.

이상 경쟁적으로 출간된 연구물 중에서 주요한 학문적 논문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한국전쟁: 강대국 정치와 남북한 갈등』(이하 『한국전쟁』으로 약함), 『한국전쟁의 정치외교사적 고찰』(이하 『정치외교사』로 약함), 『현대사를 어떻게 볼 것인가』(이하 『현대사』로 약함), 『한국전쟁을 보는 시각』(이하 『시각』으로 약함)의 4권이다.¹⁵⁾

맹, 한국전쟁』(『사상』 1990년 봄호에 실림); Francois Joyaux, 「한국전쟁기간 중 중국군의 개입」; 伊豆見元(이즈미 하지메), 「미중정책과 한국전쟁」; 翟志海(Zhai ZhiHai), 「중국의 한국전쟁참전결정에 대한 재고」; Stephen Kirby, 「한국전쟁과 평화정착」; Kevin Lewis, 「동북아에 있어 군비통제전망: 최근 타지역 발전으로부터의 교훈」; 노경수, 「1990년대 강대국의 안보정책과 동아시아: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 안병준, 「한국에 대한 미국의 전략평가와 군비통제」.

15) 이 논문집들의 저자와 논문명을 가나다순으로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김계동, 「오늘의 시점에서 본 6·25의 사회적 흔적」, 『현대사』; 김경수, 「한국전쟁에서의 인도의 역할」, 『정치외교사』; 「한국전쟁과 중립국의 역할: 인도의 평화 중재 노력을 중심으로」, 『시각』; 김부기, 「한국전쟁에 대한 소련의 정책」, 『시각』; 김영식, 「제한전쟁으로서의 한국전쟁」, 『정

주류적 연구들을 평가해 보면 역시 김철범, 김학준, 김점곤, 라종일 교수 등의 연구자가 6·25전쟁에 대한 전통주의적 기성 학계를 주도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안천 교수의 『남침유도설해부』(서울:과학지식사, 1993)는 실증적 연구로서 전통주의적 연구의 새로운 경향을 대변했다.

한편 전쟁기념사업회는 『한국전쟁사』 전 6권을 행림출판사에서 1990년부터 1992년 사이에 완간했다. 집필위원은 류재갑, 김학준, 박상섭, 김점곤, 김부기, 황병무, 김철범 등이며 각권의 부제는 1권: 요약통사, 2권: 전쟁의 기원, 3권: 북한군침공과 한국군방어, 4권: 낙동강에서 압록강으로, 5권: 중공군 개입과 새로운 전쟁, 6권: 한국전쟁의 영향 등이다.

이러한 전통주의적이며 주류적 연구자들은 6·25전쟁 40주년인 1990년에래 젊은 세대의 6·25전쟁 연구가 수정주의에 의해 압도당하는 것을 비판했으며 이를 극복하려는 의도에서 여러 논쟁에 참여했다.

치의교사; 김유남, 『한국전쟁과 중·소관계』, 『시각』; 김윤식, 『6·25전쟁문학』, 『현대사』; 김점곤, 『남로당 폭력혁명의 연장선상에서 일어난 한국전쟁』, 『한국전쟁』; 『한국전쟁과 김일성의 통일전략』, 『시각』; 김철범, 『북한의 남침을 빚어낸 미국의 철군정책』, 『한국전쟁』; 『한국전쟁과 미국의 외교정책: 철수, 참전, 복진, 휴전 결정을 중심으로』, 『시각』; 김학준, 『북한 정치지도층의 권력투쟁과 한국전쟁』, 『한국전쟁』; 『한국전쟁의 기원』, 『정치외교사』; 『6·25연구의 국제적 동향』, 『현대사』, 『시각』; 남주홍, 『미국의 참전』, 『정치외교사』; 라종일, 『한국전쟁의 의미: 한국의 입장』, 『시각』; 박두복, 『중공의 한국전 개입』, 『한국전쟁』; 『중공의 한국전쟁 개입의 원인에 관한 연구』, 『정치외교사』; 박상섭, 『한국전쟁과 유엔의 역할: 한국전 발발에서 중국군 한국전 개입까지의 유엔의 결정과정』, 『시각』; 서대숙, 『북한의 소비에트 정권수립』, 『한국전쟁』; 소진철, 『한국전쟁: 국제 공산주의자들의 음모』, 『한국전쟁』; 신복룡, 『한국전쟁의 휴전』, 『정치외교사』; 안병만, 『6·25의 국제적 영향』, 『현대사』; 안병영, 『6·25가 미친 정치적 영향』, 『현대사』; 온창일, 『휴전을 둘러싼 한·미관계』, 『한국전쟁』; 『초총력전 그리고 제한전』, 『정치외교사』; 『한국전쟁의 양면성』, 『시각』; 이대근, 『6·25가 미친 경제적 영향』, 『현대사』; 이우진, 『한국전쟁과 미국의회』, 『정치외교사』; 정종욱, 『한국전쟁과 한국외교』, 『현대사』; 홍순호, 『한국전쟁과 UN군』, 『정치외교사』; 황병무, 『한국전쟁과 중국의 외교정책』, 『시각』.

4. 수정주의적 경향의 등장: 1980년대

1980년대 초반 진보적 학문의 태동 분위기 속에서 콜코 부처(Gabriel and Joyce Kolko)와 브루스 커밍스(Bruce Cumings)의 해방3년사에 관한 논문과 저작이 한국에 부분 번역되면서<『한국현대사의 재조명』(서울: 돌베개, 1982); 『분단전후의 현대사』(서울: 일월서각, 1983)> 한국현대사에 관한 수정주의적 연구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그런데 초기의 연구는 1945년부터 1948년 사이의 역사에 국한되었는데 이 경향이 6·25전쟁까지 확장되기 위해서는 몇 년의 시간이 더 필요했다.¹⁶⁾ 1981년에 간행된 커밍스의 저작 *The Origins of the Korean War*, vol. I 이 1986년에야 번역되었던 것이다.

커밍스의 저작은 국내 학계에 서설적 문제제기를 가능하게 했다. 그의 가설에 동조하는 사람은 그의 연구를 주체적으로 계승·발전시키려 했으며, 비판적으로 인식하는 사람은 그의 연구가 학계에 미치는 영향력을 최소화시키고 그의 연구를 극복하려고 노력했던 것이다. 이른바 ‘커밍스 콤플렉스’와 ‘커밍스 알레르기’라는 상반된 방향으로 나아갔던 것이다.¹⁷⁾

1980년대 말 한국학계의 젊은층을 중심으로 한 6·25전쟁 연구는 수정주의가 풍미했다. 대개 국내대학에서 석사학위논문을 작성한 수정주의적 연구

16) 이대근 교수는 국외에서의 수정주의적 연구가 번역되기 전부터 연구를 시작하여 박사논문을 작성한 비판적 계열의 선구적 학자이다. 그는 일찍이 1982년 12월에 발간된 『한국경제』 제10호에 「6·25가 미친 경제적 영향」을 실었으며 1984년에 자신과 정운영 교수가 공편한 『한국자본주의론』(서울: 까치, 1984)에 「6·25의 사회경제적 인식」을 발표했다. 이어 그의 박사논문(『한국전쟁과 1950년대 자본축적: 원조의존축적론』의 비판적 극복을 위한 일시론, 서울대학교 경제학과)을 『한국전쟁과 1950년대의 자본축적』(서울: 까치, 1987)로 간행했다. 경제학자가 다룬 몇 안 되는 한국전쟁 관계 논문이다. 따라서 국내의 한국전쟁 관련 세미나나 기획에서 경제분야 발표자나 필자를 선정할 때 거의 항상 초청된다.

17) 전상인, “브루스 커밍스의 한국현대사 이해”, 『한국현대사연구』 1(1998), p. 204.

자들은 1989년 개별적으로 연구업적을 간행한데 이어 6·25전쟁 발발 40주년인 1990년에는 한국정치연구회 정치사분과 (편), 『한국전쟁의 이해: 한국전쟁 발발 40주년 논집』(서울: 역사비평사, 1990; 이하 『이해』로 약함)과 최장집 (편), 『한국전쟁연구』(서울: 태암, 1990; 이하 『연구』로 약함)을 출간했다. 양 논문집에 비슷한 연구가 많은데 주제별 정리는 각주를 참조할 수 있을 것이다.¹⁸⁾

이들 진보적 연구자 중 6·25전쟁 연구를 계속 수행한 전문 연구자로는 1994년 고려대학교 대학원 정치학과에서 「한국전쟁의 발발과 기원」이라는 제목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박명림을 들 수 있다. 그는 자신이 기존에 집필했던 6·25전쟁에 관한 개론 수준의 다양한 연구¹⁹⁾의 수준을 넘어 북한 노획문서 중심의 미국 국립문서보관소 소장자료와 발굴 초기의 러시아측 증언 등을 광범위하게 활용하여 6·25전쟁의 기원과 발발 배경에 대한 논의를 전개했다. 또한 국내 인사의 인터뷰와 대한민국 국방부 소장자료의 발굴은 국내 자료는 소홀히 하면서 국외 자료에만 지나치게 의존했던 기존

18) 최장집, 「한국사회에 대한 하나의 이해」, 『연구』; 박명림, 「한국전쟁 연구서설」, 『이해』; 남기정, 「한국전쟁의 국제적 배경과 원인」; 강경성, 「한국전쟁의 국내적 배경과 원인 I: 남한정치의 전개과정(1948-50)」; 김용복, 「한국전쟁의 국내적 배경과 원인 II: 북한정치의 전개과정(1948-50)」, 이상 『이해』; 최봉대, 「한국전쟁의 기원과 성격을 둘러싼 몇 가지 문제」, 『연구』; 박명림, 「한국전쟁의 전개과정」, 『연구』; 이광일, 「한국전쟁의 발발 및 군사적 전개과정」, 『이해』; 김남식, 「전쟁전후 남한에서의 무장유격투쟁의 전개」, 『연구』; 김주환, 「한국전쟁 중 북한의 대남한점령정책」, 『이해』; 장미승, 「북한의 남한 점령정책」, 『이해』; 김창우, 「한국전쟁초기 미국의 전쟁정책과 북한점령」, 『연구』; 임재동·최정미, 「미국의 전쟁전략과 전쟁정책」, 『이해』; 신현, 「중국의 참전 배경·원인 및 영향」, 『이해』; 김상배, 「한국전쟁중 북한의 국내정치」, 『이해』; 류상영, 「휴전협정의 성립과정과 성격」, 『이해』; 이혜원·조현연, 「한국전쟁의 국내외적 영향」, 『이해』; 정해구, 「한국전쟁과 북한사회주의」, 『연구』; 古關彰一, 「한국전쟁과 일본계군비」, 『연구』; 임현영, 「전후문학에 나타난 한국전쟁 인식의 변모」, 『연구』; 류상영, 「북한의 한국전쟁인식과 성격규정」, 『연구』.

19) 박명림의 연구로는 위에서 열거된 논문 외에 다음과 같은 저작이 있다. 「한국전쟁사의 쟁점」, 박명림 외, 『해방전후사의 인식』 6(서울: 한길사, 1989); 「한국전쟁」, 한국정치연구회 정치사분과 편, 『한국정치사』(서울: 백산, 1990).

전통주의적 연구경향에 반향을 주었다.

5. 후기수정주의적 종합의 모색: 1990년대 초

전통주의와 수정주의의 대립 속에서 중간적 입장을 대변하는 학자들은 후기수정주의(post-revisionism)²⁰⁾적 입장을 도입하기 시작했다. 하영선 교수는 서울대학교 외교학과에서 자신의 지도를 받은 석사논문들을 중심으로 『한국전쟁의 새로운 접근: 전통주의와 수정주의를 넘어서』(서울: 나남, 1990)라는 편저를 간행했다.²¹⁾

또한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는 1991년 『한국전쟁과 남북한사회의 구조적 변화』를 편집·간행했다.²²⁾ 이 책의 저자들 중 수정주의적 경향에 동조하는 인사가 상당수 있지만 『이해』와 『연구』 저자들보다는 비교적 세대가 높으며 따라서 다소 중도적 흐름도 포괄하고 있는 논문집이라고 할 수 있다.

20) 이를 후기수정주의로 번역하지 말고 탈수정주의로 번역하지는 학자들도 있다. 이들은 냉전후 시대(post Cold War era)를 탈냉전기로 부르지 후기냉전기로 부르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대개 이들은 post-revisionism의 수정주의에 대한 연속성을 단절로 보는 전통주의의 계승자이다.

21) 수록 논문은 다음과 같다. 안병길, 「한국의 세계체제 편입에 관한 연구: 1945-1946년을 중심으로」; 전진호, 「이승만의 단정노선에 관한 연구」; 하영선, 「냉전과 한국」; 이원덕, 「주한미군 철수에 관한 연구」; 최광녕, 「한국전쟁의 원인에 관한 연구」; 서주석, 「한국전쟁의 전개과정 연구: 미국의 전쟁 제한정책 결정과정과 그 원인을 중심으로」; 채용기, 「한국전쟁의 종전에 관한 연구」; 하영선, 「북한의 한국전쟁 해석」.

22) 목차는 다음과 같다. 손호철, 「한국전쟁과 이데올로기지형: 국가, 지배연합, 이데올로기」; 이삼성, 「한국전쟁이 냉전과 한미관계에 미친 영향: 전통적 시각과 비판적 시각의 비교」; 김대환, 「한국전쟁과 한국자본주의」; 강문구, 「한국군부의 창설·변화과정: 해방이후 한국전쟁기까지」; 유석춘, 이우영, 장덕진, 「한국전쟁과 남한사회의 구조화」; 강정구, 「한국전쟁과 북한사회주의 건설」; 이완범, 「한국전쟁연구의 국내적 동향: 그 연구사적 검토」.

6. 1990년대 말 탈냉전기의 새로운 연구경향으로 서의 다국사료 교차분석: 세대교체와 수정주의 —아카이브 결합

1980년대 말부터 1990년대에 들어서 6·25전쟁 연구자의 세대교체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 1980년대 말에는 이러한 바람이 비록 미풍이었지만 불기 시작했는데 1988년 프랑스 고등사회과학원에서 「한민족의 단일성과 한국전쟁」이라는 제목으로 박사학위 논문을 작성한 허만호 교수와 역시 1988년 영국 옥스포드대학에서 “Western Intervention in Korea, 1950~1954”라는 제목으로 박사학위 논문을 작성한 김계동 박사 등이 그 주역이다. 허만호 교수는 『한국정치학회보』 제23집 1호(1989)에 「한민족의 단일성과 지속성: 한국전쟁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실었고, 김계동 박사는 「한반도 분단과 전쟁에 있어서 외세의 역할」, 『사회과학연구』 창간호(연세대 사회과학연구소, 1989); 「미국의 대한반도군사정책변화」, 『군사』 제20호(1990); 「한국전쟁과 영미의 외교적 갈등」, 『국제정세』(1990년 6월); 「한국전쟁을 보는 시각: 전쟁기원과 중국의 참전과정」, 『통일문제연구』 제2권 2호(1990년 여름)등 왕성한 저작을 발표했다. 또한 그는 학위논문을 *Foreign Intervention in Korea*라는 제목으로 영국 Aldershot에 있는 Dartmouth 출판사에서 1993년에 간행했다.

1990년대에는 국내·외 가릴 것 없이 6·25전쟁 연구자들이 쏟아져 나왔는데 그 중에서 주목할 만한 연구자로는 전술한 박명림 박사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면면을 들 수 있다. 먼저 일본 동경대학교에서 1945~61년간의 사회주의 체제의 성립 문제로 박사학위를 받은 서동만과 미국 버지니아대학교에서 국제정치이론으로 학위를 한 김영호, 서울대학교 외교학과에서

「한국의 국가체제 형성과정」으로 학위를 받은 서주석, 프랑스 소르본느대학교에서 6·25전쟁 이후의 유럽 문제로 학위를 받은 김명섭, 서울대학교 사회학과에서 6·25전쟁 후 월남민들의 이주촌 건설 문제로 학위를 한 김귀옥, 한국정신문화연구원에서 「한국전쟁중 유엔군의 포로정책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은 조성훈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연구원 등이 1990년대 등장한 새로운 한국전쟁 연구자들이다.

이러한 새로운 연구자들의 등장은 기존의 전통주의적 학계를 변화시키고 세대교체의 바람을 몰고 왔다. 이들은 대체로 새로운 자료를 동원해 기존의 해석을 재해석하면서 탈냉전시대 6·25전쟁 연구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들 중 일부는 기존의 연구자들과는 다른 새로운 주제를 개척해 6·25전쟁 연구의 영역을 다양화시켰다.

1990년대 후반 이후 새로운 연구경향의 또 다른 특징은 다국사료 교차분석법이다. 전통주의는 기본적으로 한 나라의 사료에 국한해 논의를 전개했는데 이러한 일국적 연구의 한계를 뛰어 넘는 것이 다국언어-다국사료 교차분석법이다. 이는 21세기 지구화의 조류와도 일맥상통하며 아카이브 등에서 수집한 1차 자료와 기존의 시각을 결합시키는 후기수정주의적 접근과도 어느 정도 맥이 닿고 있다.

이러한 아카이브와 수정주의의 결합을 피한 대표적 연구물로 들 수 있는 것이 박명림의 학위논문을 증보한 저서, 와다하루끼의 저작,²³⁾ 김영호의 저작 『한국전쟁의 기원과 전개과정』(서울:두레, 1998) 등이다. 특히 와다는 러시아어, 영어, 한국어, 중국어 등 4개 외국어와 일본어 등 5개 국어를 해독할 수 있다.

브루스 커밍스는 『한국전쟁의 기원』 1권에서 주로 미국 내쇼날아카이브에 있는 미국 문서와 북한노획문서, 한국에서 수집한 한국자료 등에 의존

23) 和田春樹, 『朝鮮戰爭』(東京:岩波書店, 1995); 서동만 역, 『한국전쟁』(서울:창작과 비평사, 1999). 한국어 번역본은 원서의 에필로그가 생략되고 보설로 “러시아 새 자료에 따른 검토”가 추가되었다.

했는데 1990년에 간행한 그의 『한국전쟁의 기원』 2권은 특히 미국문서에 치중하였으며 북한문서는 비교적 소홀히 취급했다. 이에 비해 박명림 박사의 『한국전쟁의 발발과 기원』 전2권(서울:나남, 1996)은 그전까지 소홀히 취급되었던 한국정책 결정자들의 인터뷰 기록과 작전명령 등 내부문서의 발굴에 기여했다. 그렇다고 그의 저작이 미국 등의 문서를 소홀히 다룬 것은 아니다. 특히 그는 북한노획문서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통해 6·25전쟁이 김일성의 주도로 발발되었음을 밝히려 했다.

한편 김영호 교수가 미 버지니아 대학에서 작성한 박사학위논문을 중심으로 간행한 『한국전쟁의 기원과 전개과정』(서울:두레, 1998)은 비교적 최근에 나온 관계로 미국문서 외에 1990년 중반 이후 공개된 러시아문서도 상당부분 참조하여 보완할 수 있었다.

그런데 러시아문서의 공개가 기존의 전통주의적 견해를 보다 더 강화시켰으며 수정주의를 완전히 압도했다는 평가도 있다. 소련의 몰락으로 ‘고개를 숙인’ 수정주의가 러시아문서의 공개로 완전히 패배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는 남침설에 국한된 견해이며 남침설이 정설로 정착된 후 소모적인 논쟁이 지양되어 수정주의-전통주의간에 생산적 논쟁을 전개할 수 있는 바람직한 국면이 조성되었다고 할 수도 있다. 이점에서도 진보적 입장인 수정주의가 완전히 패배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건설적 논쟁이 시작될 수 있는 새로운 상황이 도래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문제는 남침이 있게 한 구조적 요인이지만 쌍방이 모두 무력통일을 호언장담했던 상황에서 전쟁의 주도자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장이 수정주의자들의 주요한 주장 중의 하나였다. 또한 6·25전쟁의 전체상과 연결시키면 러시아문서 발굴로 인한 다국사료 교차분석방법의 도입으로 인해 수정주의자들은 문제의식을 오히려 심화시켰다고 볼 수도 있다.

한편 와다 교수는 다른 연구자들이 비교적 큰 비중을 두지 않았던 중국 측 자료의 분석에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다. 그는 중국이 6·25전쟁을 국공내전의 연장선상에 본 사실을 강조해 북한-중국 관계에 대한 정밀한

분석에 치중하고 있다. 그는 중국의 6·25전쟁 참전 배경을 설명하려면 북한-중국 사이의 깊은 역사적-인간적-심리적 연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연구의 시각과 내용 면에서 커밍스와 박명림의 연구가 기원에 많은 부분을 할애하는데 비해 와다 교수는 기원을 전혀 무시하지는 않지만 전쟁의 직접적 배경이나 전쟁과정에 그 주요한 부분을 할애하고 있다. 즉 개전에서 서부터 정전협정까지를 주로 다루고 있다. 물론 박명림도 발발의 직접적 배경을 중시하고 있으며 커밍스의 『한국전쟁의 기원』 2권은 1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발발의 직접적 배경에 치중하고 있다. 또한 중국 참전의 배경에 대해서도 박명림의 연구는 비교적 상세한 해설을 하고 있다. 따라서 박명림·커밍스·와다·김영호 4인의 저작을 비롯해 다른 기존 연구 성과를 함께 비교·대조한다면 한국전쟁의 포괄적 전체상을 그릴 수 있으리라고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각각의 연구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아직 6·25전쟁 연구가 50주년의 시점에서 종결되어 정설이 확립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보다 더 엄밀한 업적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심층적인 검토와 토론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예를 들어 방대한 자료를 분석하는 면에서 각각의 연구는 모두 하나의 자료를 침소봉대하는 측면이 있다. 따라서 다국사료 교차분석을 통해 다양한 비교를 행하여 각각의 사료를 비판적으로 인식하는 안목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1990년대 후반기(1997, 1998, 1999) 6월 25일에 해마다 개최된 한국전쟁연구회의 세미나 발표자의 면면을 보면 1990년대 전반기에 활동했던 전통주의적 중진연구자들과 신진연구자의 균형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1997년의 세미나 주제는 「한국전쟁과 한반도 통일문제」였으며 1998년은 「탈냉전시대 한국전쟁의 재조명」, 1999년은 「한국전쟁의 회고와 과제: 새 천년에의 의미」였다. 이러한 활발했던 1990년대 후반기의 세미나가 2000년 6·25전쟁 50주년을 기념하여 공간되었는데 장을 달리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7. 6·25전쟁 50주년 기획

2000년에는 6·25전쟁 50주년을 기념하여 여러 세미나와 저서들이 공간되었다. 먼저 한국전쟁연구회(편), 『탈냉전시대 한국전쟁의 재조명』(서울: 백산서당, 2000)이 특기할 만하다. 이 저작은 기존에 한국전쟁연구회의 세미나에서 발표된 원고와 새로 작성된 것을 묶어서 공간한 것이다.

총 4부로 이루어졌는데 제1부는 한국전쟁의 해석과 연구동향이다. 먼저 전쟁 연구의 선구자격이라고 할 수 있는 김학준 교수는 「6·25전쟁에 관한 몇 가지 예비적 토론」이란 글에서 한국전쟁이나 6·25동란이라는 용어보다 6·25전쟁이라는 말이 상대적으로 정확한 표현이라고 주장했다. 김명섭 교수는 「냉전의 종식과 연구의 열전」에서 탈냉전기 6·25전쟁 연구가 활발해진 상황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김영호 교수는 「한국전쟁 연구의 향후 과제와 전망」에서 6·25전쟁의 기존 연구 과제를 원인-전개과정-종전과정이라는 세 가지 범주로 분류했다. 기존의 연구가 주로 원인에 대한 설명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므로 6·25전쟁 전개과정에 대한 연구가 보다 심화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교수는 전개과정에 대한 가장 중요한 연구과제의 하나로 중국의 개입을 들고 있다. 휴전회담과 연결시킨 기존의 종전과정에 대한 연구는 소련의 비밀문서로 보완될 필요가 있으며 스탈린이 6·25전쟁의 종전을 유럽에서의 공산세력 팽창과 어떻게 전략적으로 연결 짓고 있었느냐와 국군 포로의 문제 등을 향후 과제로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6·25전쟁의 영향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6·25전쟁이 남북한의 국가형성, 남북관계, 동북아질서 형성, 세계냉전구도에 끼친 영향 등을 경험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향후 중요한 연구 과제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제2부는 한국전쟁의 국제적 기원-개입과 갈등인데 이완범 교수의 「한국전쟁의 국제적 기원」에서는 세계적 냉전이 동북아 지역에 어떻게 침투하는

지가 역사적으로 분석되고 있다. 박두복 교수의 「중국의 한국전쟁 개입원인」은 이 분야의 권위자답게 기존의 논쟁을 잘 정리하고 있으며 중·소 관계와 개입결정의 피동적 원인으로 그리고 보가위국(保家衛國)을 개입의 능동적 측면으로 분석하고 있다. 또한 중국의 대소일변도 정책과 절박해진 전통적 우적(友敵) 관념의 전도, 대중운동의 전개, 중국과 모택동(毛澤東)에 대한 스탈린의 불신을 개입의 또 다른 능동적 측면으로 보고 있다. 6·25전쟁에 대한 중국의 개입결정은 피동적 요인과 능동적 요인의 상호 결합의 결과였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중국의 한국전 개입결정은 외래적 강박과 내재적 자원(自願)이 상호 결합된 산물이었다는 것이다. 김계동 교수는 「한국전쟁 기간 영·미간의 갈등」을 유화론과 강경론의 대립이라는 측면에서 다루고 있다. 특히 중국에 대한 강경론과 유화론의 대립을 중국 참전과 '중국에 대한 침략자 규정 결의안'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다. 홍용표 박사는 「전쟁 전개과정에서의 한·미간의 갈등」을 이승만의 북진통일론과 미국의 대응을 중심으로 고찰하고 있다.²⁴⁾ 단독북진 위협과 반공포로 석방 문제 등이 심층적인 주제들 중의 하나이다.

제3부는 한국전쟁과 남북한 국가체제 형성인데 서주석 박사는 「한국전쟁과 남한의 국가형성」을 재정분석을 통해서 살펴보았다. 그는 역사사회학적 틀을 통해 한국에서의 전쟁-국가형성 과정에 대한 이론화를 시도하고 있다. 서동만 교수는 「한국전쟁과 북한체제의 변화」에서 전시농업생산체제와 지방통치체제를 중심으로 북한의 전후 사회주의건설체제를 분석하고 있다. 홍용표 박사의 두 번째 글인 「한국전쟁이 남북한관계에 미친 영향」이 김일성의 반미의식과 이승만의 반공의식의 변화를 중심으로 분석되고 있다.

제4부는 한국전쟁과 한반도의 평화-통일이다. 라종일 교수는 「북한통치의 반성」이라는 제목에서 1950년 가을 미국이 주도한 유엔의 북한점령통치

24) 그는 다음 책을 출간하기도 했다. Yong-pyo Hong, *State Security and Regime Security: President Syngman Rhee and the Insecurity Dilemma in South Korea, 1953-60*(New York: St. Martin's Press, 2000).

를 강대국 정치라는 시각에서 매우 포괄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미국 국립 문서보관소(National Archives)의 국무부 문서 중 795시리즈와 영국 런던의 공공기록처(Public Record Office; 약칭 PRO) 문서 등에다가 국내 자료를 포함하여 다각도로 분석하고 있는 그의 글은 다국사료 교차분석의 선구자적 모습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온창일 교수는 「한국전쟁과 한미 상호방위조약」에서 중국의 참전에서부터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체결되는 과정을 일목요연하게 그려내고 있다. 중국의 개입이 6·25전쟁을 완전히 새로운 전쟁으로 전파시켰으며 결국 군사적 승리대신에 정치적 타협안을 모색할 밖에 없게 되었다. 미국은 전쟁의 재발을 억제하기 위하여 이승만 대통령과 논의했는데 결국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체결되어 한미동맹관계는 진전되었던 것이다. 허만호 교수는 「휴전협정의 평화체제화」에서 반세기 가까이 진행되어온 남북한간의 정부간 협상이 미시적-협상기술론적 관점에서 의사협상(pseudo-negotiation) 내지 협상 발전단계의 극히 초보적 수준에 머물러 있으므로 이미 체결된 남북기본합의서와 부속합의서의 실천을 통해 평화체제를 제도화시켜야 한다는 대안적 제안을 다루고 있다. 서주석 박사는 두 번째 글인 「한국전쟁과 한반도 안보구도의 변화」에서 6·25전쟁 전후시기와 이후시기의 한반도 안보구도의 변화과정을 역사적으로 다루고 있다. 한반도 정전체제와 평화체제 수립방향을 다룬 부분에서는 북한의 정전체제 무력화(무실화) 전략을 언급한 후, 「한국전쟁 이후체제」(post-Korean War structure)의 종식과 평화적 전환방향에 대해 논했다. 김계동 교수의 두 번째 글은 「한반도 냉전구조의 해체」이다. 이 글에서 김교수는 국제적 탈냉전의 유형으로 세 가지로 살펴보았는데 독일의 탈냉전을 교류·협력형으로 보고 있으며 유럽의 탈냉전을 신뢰구축형으로 미·소의 탈냉전을 압박·굴복형으로 명명했다. 한반도가 냉전을 극복하기 위한 선택적 대안은 이러한 유형의 예에서 하나의 교훈을 얻을 수 있다. 그 방안으로는 대결-압박-봉쇄에서 화해-포용으로 나아가는 체제경쟁 종식 방안과 교류·협력의 제도화를 내용으로 하는 신기능주의적 접근에 주목하고 있다. 마지막

으로 포괄적 신뢰구축을 할 수 있는 당사자 플러스 다자적 접근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이상 내용을 통해서 보면 중견학자와 신진학자가 서로 균형을 이루고 있으며 전통주의와 수정주의가 수렴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²⁵⁾ 1987년 전통주의자들이 주도하여 결성된 한국전쟁연구회가 1980년대 말과 1990년 초 전통주의적 연구를 조직화하고 1990년대 말 새로운 조류를 접하면서 2000년에는 새로운 종합을 이루어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2000년에는 여러 연구 모임에서 6·25전쟁 50주년 특집을 기획하여 새로운 의미를 되새겼다. 개최 순서대로 열거하면 우선 한국역사연구회가 6월 10일에 「한국전쟁의 재인식: 분단을 넘어 통일로」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이 모임에서 도진순 교수는 「서설: 화해와 통일을 위한 전쟁인식의 과제」라는 주제로 발표했으며 정병준 선생의 「1949-50년 38선 충돌과 북한의 한국전쟁 계획», 안정애 박사의 「한국전쟁기 주한미군사고문단의 조직과 활동」이 이어졌다. 또한 기광서 교수의 「소련의 한국전쟁관과 개입과정», 양영조 박사의 「한국전쟁기 한국 군부의 재편과 정치화 과정」이 발표되었다.

6월 13일에는 서울대 법학연구소에서 「6·25의 법적 조명」이라는 주제하에 한상희 교수의 「전시하의 헌법체제», 한인섭 교수의 「부역자 처벌의 법적 문제」가 발표되었다.

6월 24일에는 한국정치학회, 21세기평화연구소, 한국전쟁연구회, 한국정치외교사학회 공동주최로 「한국전쟁과 21세기 한반도 평화의 모색」이라는 주제로 국제학술회의가 개최되었다.

또한 7월 14일부터 15일까지 국제정치학회는 한국전략문제연구소와 공동으로 「한국전쟁이후 50년: 냉전적 대립에서 평화공존으로」라는 주제로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했다.

2000년에 출간된 6·25전쟁 관련 논저들은 먼저 「특집: 오늘의 시점에서

25) 「중-러 기밀자료들 공개... 6·25연구 활기」, 『조선일보』, 2000년 6월 23일.

본 한국전쟁, 『경제와 사회』 제46호(2000년 여름)²⁶⁾와 「탈냉전기 신자료로 본 한국전쟁, 『정신문화연구』 제23권 2호(2000년 여름)²⁷⁾; 「한국전쟁의 미시적 분석, 『역사비평』 통권 51호(2000년 여름)²⁸⁾ 등 특집·기획 시리즈를 들 수 있다. 또한 김계동, 『한반도의 분단과 전쟁』(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0)와 김동춘, 『전쟁과 사회: 우리에게 한국전쟁은 무엇이었나?』(서울: 돌베개, 2000); 이희진·오일환, 『한국전쟁의 수수께끼: 분단의 미스터리, 개전의 의혹을 파헤친다』(서울: 가람기획, 2000); 『누구를 위한 전쟁이었나: 한국전쟁의 진실과 의미』(서울: 다홀미디어, 2000); 김중생, 『조선의용군의 밀입북과 6·25전쟁』(서울: 명지출판사, 2000); 이완범, 『한국전쟁: 국제전적 조망』(서울: 백산서당, 2000) 등 단행본을 들 수 있다. 이 들 연구는 모두 6·25전쟁 50주년에 맞추어 내어놓은 것이다.

8. 과거사로서의 전쟁 연구: 21세기적 조류, 사회사와 인류학적 접근, 사람과 전쟁

6·25전쟁 중 현재 가장 중요한 문제들 중의 하나는 역시 당시 전쟁을

-
- 26) 이완범, “한국전쟁 연구 50년과 과제”; 김귀옥, “잃어버린 또 하나의 역사: 한국전쟁시기 강원도 양양군 미군정 통치와 반성”; 공제욱, “한국전쟁과 재벌의 형성”; 정진상, “한국전쟁과 전근대적 계급관계의 해체”; 정성진, “한국전쟁, 베트남전쟁과 영구군비전쟁”; 김정훈, “한국전쟁과 담론정치: 민족해방전쟁으로서의 한국전쟁과 반공규율사회의 형성.”
- 27) 김명섭, “한국전쟁 연구를 위한 다국 사료 교차 분석법과 그 국내적 기반”; 방신주, “한국전쟁 당시 북한 자료로 본 ‘노근리’ 사건”; 조성훈, “미국 자료를 통해 본 휴전 협상의 지연 요인 연구: 포로 문제를 중심으로”; 이완범, “중국의 한국전쟁 참전: 중국-러시아 자료의 비교를 중심으로”.
- 28) 류춘도·윤해동, “인민군 여자군의관으로 겪은 한국전쟁”; 이도영, “‘백조일손지료’가 말하는 전쟁기 제주도 양민학살”; 서동만, “한국전쟁과 김일성”; 김동춘, “서울시민과 한국전쟁: ‘잔류’·‘도강’·‘피난’”; 김재용, “염상섭 전쟁문학과 분단극복의 눈”.

경험했던 사람들과 살아남은 자의 ‘수난’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수난에 대한 연구는 논의조차 금기시되었든지 오랫동안 주목받지 못했으나 최근 과거사청산이 시대적 화두로 등장하면서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1990년대 말 이후 노근리사건을 필두로 거창사건, 함평사건²⁹⁾ 등이 조명을 받으면서 ‘학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환기되었다. 충청북도 영동군 노근리에서의 미군의 민간인 학살에 관한 AP통신의 문서 공개와 방선주 선생의 문서발굴로 전쟁체제와 인권에 대한 문제가 관심을 끌었던 것이다.³⁰⁾

그러나 이러한 사건들이 정치사적 시각에서 접근되었다는 비판도 있다. 6·25전쟁을 직접 겪은 민중들의 전쟁경험에 대한 논의가 누락되었다는 것이다.

6·25전쟁기간 중 민중들의 삶을 관심 깊게 지켜보던 김동춘 교수는 1999년 10월 9일 한국산업사회학회가 주최한 비판사회학대회 발표논문인 “한국의 인권 현실과 인권의 사회학”에서 인권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그는 2000년 돌베개출판사를 통해 『전쟁과 사회: 우리에게 한국전쟁은 무엇이었나?』를 출간했다. 피난-점령-학살을 화두로 삼은 이 책의 제4부 학살(195-286쪽) 편에서 저자는 민간인 학살 문제에 대해 본격적으로 천착하였다. 그는 이 책을 “한국전쟁 당시 왜 죽어야 하는지도 모른 채 억울하게 스러져 간 남북한의 모든 이름 없는 영령들 앞에 바친다”고 적고 있다. 기존의 연구와는 달리 전쟁이 일반민중에게 무엇을 남겼는지, 오늘날의 한국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를 해명하고자 했다.

비슷한 시기에 6·25전쟁에 대한 사회사적 문제제기가 이루어졌다.³¹⁾ 전상인, “한국전쟁의 사회사를 위하여”, 『사회비평』 제24호(2000년 여름),

29) 김영택, 『한국전쟁과 함평양민학살』(서울: 사회문화원, 2001).

30) 방선주, “한국전쟁 당시 북한자료로 본 ‘노근리’ 사건”, 『정신문화연구』(2000년 여름); 최상훈, 찰스 헨리, 마사 멘도자 공저, 『노근리 다리: 한국전쟁의 숨겨진 악몽』, 남원준역(서울: 잉길, 2003).

31) 사회학계의 한국전쟁 연구는 1990년대 초반부터 집대성되었다. 한국사회학회 편, 『한국전쟁과 한국사회변동』(서울: 풀빛, 1992)가 그것이다.

104-116쪽이 그것이다.³²⁾

한편 최근에는 김동춘 교수의 문제제기에 기반하여 일군의 인류학자들이 『전쟁과 사람들: 아래로부터의 한국전쟁 연구』(서울: 한울, 2003)를 간행하였으며 역시 인류학자인 윤택림 박사가 『인류학자의 과거 여행: 한 빨갱이 마을의 역사를 찾아서』(서울: 역사비평사, 2003)를 집필하였다. 또한 김현아, 『전쟁과 여성: 한국전쟁과 베트남전쟁 속의 여성, 기억, 재현』(서울: 여름언덕, 2004)도 출간되었다. 한편 1950년대 한국여성의 사회사를 집중 조명한 이임하, 『여성, 전쟁을 넘어 일어서다: 한국전쟁과 젠더』(서울: 서해문집, 2004)도 특기할 만하다. 이들 저서는 전쟁 연구에서 소외받았던 여성의 관점에서 전쟁을 조망한 시도들이다.

이 중 제일 처음 논문집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 책은 기존의 연구가 정치적 성격이 짙은 ‘위로부터의 연구’라고 파악했는지, 부제를 이렇게 달았다. 이 책의 저자들은 한국전쟁에 대한 기억 중 전쟁 이후 국가주의 또는 반공주의에 부합되지 않는 것들은 망각되거나 민중들은 침묵을 강요받았다고 진단하면서 전쟁 이후 빨갱이 또는 부역자로 단죄된 사람들 및 그 가족들의 전쟁경험을 주로 인터뷰하여 자료화 한 후 이를 토대로 본격적인 연구를 행하여 한 권의 논문 모음집으로 구성했다. 인류학자들에게 최근 각광을 받고 있는 생애사(life history), 구술사(oral history) 방법론을 채용하여 전쟁에 대한 경험과 기억을 논의의 장으로 끌어들이었던 것이다.³³⁾

32) 전상인, 『고개 숙인 수정주의: 한국현대사의 역사사회학』(서울: 전통과 현대, 2001), 236-249쪽에 채수록 되었다. 이 글은 김성철, 『역사 앞에서』(서울: 창작과 비평사, 1993)이라는 일기와 박완서의 『그 산이 정말 거기 있었을까』(서울: 웅진출판, 1995);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서울: 웅진출판, 1992)라는 두 권의 소설, 할머니 시인 류춘도의 『잊히지 않는 사람들』(서울: 사람생각, 1999)라는 시집에 대한 서평이다.

33) 이러한 구술사 채록자료의 예로서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 『내가 겪은 한국전쟁과 박정희 정부』(서울: 선인, 2004) 등이 있다. 또한 다음과 같이 전쟁체험 수기를 묶은 책도 있다. 임성연 등저, 『6·25 우리들의 이야기: 전민족 체험기』(서울: 월간조선사, 2001); 이무호, 『어느 줄병이 겪은 한국전쟁: 제2회 나라 안팎 한국인기록문화상』(서울: 지식산업사, 2003). 또한 최근 실록 스타일의 연구서들이 출간되었다. 최용호·김병륜, 『그때

반공의 관점에서 기층민, 인권, 여성 등의 관점이 완전히 누락되었다고 진단한 저자들은 구술사적 접근을 통해 이들의 생활사를 복원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주로 전남의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전쟁 중에 어떤 일이 일어났으며 전쟁 후 전쟁을 경험한 사람들의 기억과 생활세계 속에서 그리고 지역사회 속에서 전쟁 경험이 어떻게 반복, 재생산되고 있는가하는 문제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에 기반하여 지방민들의 역사적 경험을 드러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인민군 치하에서 일을 했던 사람들이 부역자로 몰려 죽임을 당할까 무서워 자의반 타의반 빨치산이 되었던 애기(박정석 교수의 “전쟁과 ‘빨갱이’에 대한 집합기억”, 61쪽)며, 강진의 대표적 양반가문인 해남 윤씨 집안이 일제시대에는 독립운동에 참여하고 해방 이후에 사회주의 노선을 견지함으로써 좌우익 대립 구도 속에서 ‘좌익 또는 빨갱이 가문’으로 낙인찍히는 과정에 대한 생생한 증언(염미경 교수의 “전쟁과 지역권력구조의 변화”, 116쪽) 등은 텍스트화된 역사서 이상의 의미를 가지는 것이다.

전쟁경험에 대한 구술을 통해 한 필자는 사람들이 전쟁상황을 이념보다는 훨씬 전통적인 사회관계의 틀로 이해하는 것을 발견했다고 한다(윤형숙 교수의 “전쟁과 농촌사회구조의 변화”, 77쪽). 이것은 6·25전쟁을 이념전으로만 환원시키는 기존의 고정관념을 부분적으로나마 허물 수 있는 사례라고 할 것이다.

6·25전쟁 이후 분단과 양극화된 냉전체제의 장벽에 막혀 목소리조차 드러낼 수 없었던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연구를 통해 6·25전쟁에 대한 총체적 인식에 도달하고 대립과 전쟁을 극복하여 화해와 상생의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날: 끝나지 않은 6·25전쟁 이야기』(서울:삼우사, 2003); 이선교, 『제2차 한국전쟁 1 - 끝나지 않은 전쟁 6·25를 말한다』(서울:봄, 2003).

9. 맺 음 말 : 미래 전망

1980년대 초반까지의 6·25전쟁 연구는 본격적이면서 학문적인 연구가 일천했기 때문에 아직 개론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으며 전문화되지 못했다. 1970년대 이전에는 이데올로기적 제약 때문에 학문적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런데 1980년대 이후 한국현대사연구 붐이 조성되면서 새로운 6·25전쟁 연구 전공자 그룹이 형성되었다. 따라서 오늘날과 같은 학문적 토론이 가능했던 것은 일종의 연륜이라고도 할 수 있다. 전쟁이 발발한지 55년이 경과한 2005년대에 들어와서는 한국인에 의한 6·25전쟁 연구는 그 전망이 밝다. 아카이브와 기존의 연구경향을 결합시킨 것이 주류로 등장하면서 새로운 주제에 대한 천착이 행해지고 있다.

그간 6·25전쟁 연구는 기원에서부터 시작하여 전개과정, 영향에 대한 연구로 순차적으로 그 연구의 중심이 옮겨가는 추세이다. 이제 기존의 국제정치사적 접근³⁴⁾이나 기원에 대한 과도한 강조 등이 극복되고 국내정치적 접근이나 사회학적 접근, 포로 등에 관한 심층적 접근 등도 추구되고 있다. 한편 보다 새로운 주제로서는 유엔군의 점령지에 대한 군정 실시, 세균전 문제,³⁵⁾ 전쟁 문학³⁶⁾ 등도 연구의 과제로 제기되었다. 이제 정치적

34) 그렇지만 지금도 이러한 접근에 기반한 번역서들이 나오고 있는 것은 6·25전쟁이 기본적으로 국제전적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기도 할 것이다. 윌리엄 스투, 『한국전쟁의 국제사』, 김형인 등역(서울:푸른역사, 2001); 윌리엄 스투, 『한국전쟁과 미국 외교정책』, 서은경 역(서울:나남, 2005).

35) 다음 저서가 번역되었다. 스티븐 엔더콧, 에드워드 해거먼 공저, 『한국전쟁과 미국의 세균전』, 안치용, 박성휴 공역(서울:중심, 2003).

36) 이에 대한 고전적 연구로 다음을 들 수 있다. Mick Lee Fowler, "Korean War and Korean Consciousness: An Anthology of Korean War Literature with Critique," ph D dissertation, Northern Colorado University, 1974. 최근에는 유학영, 『1950년대 한국 전쟁 전후 소설연구』(서울:북폴리오, 2004); 문선영, 『한국전쟁과 시』(서울:청동거울, 2003)이 출간되었다.

접근에서 사회적·인류학적 접근으로, 거시적 접근에서 미시적 접근으로, 집단적 이념의 차원에서 개인적 생활의 차원으로 관심이 옮겨가고 있는 것이다.³⁷⁾ 전쟁이 끝난 지 52년이 된 시점에 영향에 대한 연구와 함께 그동안 소외받았던 민중의 삶도 주목대상이 되었으니, 평화체제 구축이 멀지 않았음을 예감할 수 있다.

즉 ‘전쟁과 평화문제’를 체계적으로 연구할 시점에 도달한 것이다. 이전에는 6·25전쟁 이후의 휴전체제가 6·25전쟁 연구에 있어 관심의 영역이 되어 「한국전쟁과 휴전체제」라는 제목을 걸고 1989년 한국전쟁연구회와 1997년 한국정치외교사학회가 학술대회를 개최했었다. 이 둘을 비교해 보면 역시 8년이라는 짧은 시간 내에 신진학자가 등장했음을 알 수 있다(이외에도 1990년 『사상과 정책』은 「6·25한국전 40년 한반도휴전체제」를 특집으로 기획해 전통주의 일색의 글을 실었다). 그런데 지금의 시점에서는 휴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문제가 최대 현안으로 제기되어 있다. 이는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자는 북한의 주장에 대한 한국 정부의 유화적 태도와 연관되어 있다. 1980년대 후반과 1990년대 초 소련과 동구권의 몰락으로 냉전체제가 해체되면서 남북관계도 개선이 있을 것으로 전망되던 상황에서 개막된 1990년 9월 남북고위급회담의 결과로 1991년 12월 13일에 조인(1992년 2월 18일 발효)된 남북간의 기본합의서 제5조에는 “남과 북은 현 정전상태를 남북 사이의 공고한 평화상태로 전환시키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며 이러한 평화상태가 이룩될 때까지 현 군사협정을 준수한다”고 되어 있다. 2000년 남북정상회담의 산물인 6·15남북공동선언에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고 이후 군사회담이 열렸지만 그 한계가 노출되었으므로 평화체제 구축은 점진적으로 달성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7) 경제사적 접근은 일찍부터 시도되었으며 정치사와 함께 6·25전쟁 연구의 주요한 한 부분을 형성하고 있다. 최근의 진보적 연구물로는 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편, 『한국전쟁과 자본주의』(서울: 한울아카데미, 2000)이 있다.

새로운 주제 천착과 연구자들의 조직화를 통해 6·25전쟁 연구의 중심은 한국에 있어야 한다는 당위가 성취될 수 있을 것이다.³⁸⁾ 이러한 당위는 세계화시대에 역행하는 닫힌 민족주의적인 사고가 아니라 우리 역사 연구의 중심을 한국 내에 세워 세계로 전파한다는 주체적 역사인식이다. 6·25전쟁은 아직도 우리에게 살아 숨쉬는 절박한 역사이기 때문에 그 연구의 중심이 우리에게서 멀리 떨어진다면 하나의 화석화된 역사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반면 우리가 연구의 중심을 구축할 수 있다면 우리의 민족적 비극을 세계인에게 전파시켜 전쟁방지와 평화체제 구축의 보편적 해법을 마련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6·25전쟁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일어난 전쟁들에 대한 관심을 가져 ‘한국에서의 전쟁사’에 대한 포괄적 접근을 가질 수 있다. 청일전쟁이나 러일전쟁과 같은 획기적인 전쟁에 대한 연구와 토론이 국내학계에서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지 않다. 문희수 교수와 이창훈 교수, 우철구 교수, 신승권 교수 등이 활발하게 활동했지만 조직화의 수준은 미흡하다고 할 것이다. 이는 육군사관학교 전사학과와 온창일 교수(『韓民族戰爭史』, 서울: 집문당, 2001)나 한국역사연구회(『한국역사 속의 전쟁』, 서울: 청년사, 1997) 등에서 이미 관심을 가져왔으나³⁹⁾ 미흡한 수준이다. 따라서 한국의 전쟁사에

38) 그런 맥락에서 국외의 업적을 우리 입장에서 소화하려는 다음 시도는 의미 있다. 연세대학교 현대한국학연구소 편, 『해외한국학평론』 2(서울: 일조각, 2001). 그 목차는 다음과 같다. J. 개디스/ 우리는 이제 안다: 냉전사를 재고함-차상철; W. 스톡/ 한국전쟁: 국제사-김남균; J. 쉐/ 중국의 한국전쟁 참전: 중·미 대결의 기원-박명립; S. 곤차로프 외/ 미덥지 않은 맹우들: 스탈린, 마오쩌둥 그리고 한국전쟁-이완범; S. G. 장/ 마우쩌둥의 군사적 낭만주의: 중국과 한국전쟁 1950~1953-조성훈; R. 푹/ 승리의 대안: 한국 휴전회담과 평화구축-홍용표; 엔디코트와 헤이거만/ 미국과 생물학전: 초기냉전과 한국전쟁의 비밀-김귀옥; R. 맥글로스런/ 던애치슨과 미국의 아시아방과정책-김정배; M. 샬러/ 더글라스 맥아더: 극동의 장군-김남균; S. 리/ 제국의 전초기지들: 한국·베트남, 아시아에서 냉전의 기원, 49-54-전상인.

39) 이외에도 다음의 업적이 있다. 이기훈, 『전쟁으로 보는 한국역사』(서울: 지성사, 1997); 국방군사연구소 편, 『한민족전쟁통사』 I-IV(서울: 국방군사연구소, 1996-1997); 이재외, 『한민족전쟁사총론』(서울: 교학연구사, 1988); 3사관학교국사교재편찬회 편, 『국난

대한 통사의 발간이나 ‘한국의 전쟁 연구’를 미래 연구의 중점 테마로 제기하고자 한다.

(원고투고일 : 2005. 4. 26, 심사완료일 : 2005. 6. 4)

주제어 : 한국전쟁, 전통주의, 수정주의, 후기수정주의, 아카이브

K C I

극복사』(서울: 공학사, 1979); 이선근, 『한민족의 국난극복사』(서울: 휘문출판사, 1978)
; 이선근, 『민족의 위란과 극복』(서울: 심산문화사, 1995); 이재범 외, 『한반도의 외국군
주둔사』(서울: 중심, 2001).

<ABSTRACT>

Trends in Korean War Studies

Lee, Wan-bom

Korean scholars' rigorous studies on the Korean War increased in the period after the 1970s. The traditional explanation prevailed over the academic circle in the late 1970's. But in the 1980's the revisionist interpretation began to dominate a group of junior scholars. Confronted with the expansion and growth of revisionism, a group of traditionalists organized their academic circle in the late 1980's. The debate between traditionalism and revisionism brought to emerge the post-revisional synthesis based on revisionism or traditionalism plus archive in the early 1990. A new trend of the post-Cold War era after the 1990's is a multi-archival research which was made possible by Soviet archives and Chinese documents. The debate on revisionism and traditionalism was revitalized within academic circles through this post-revisional multi-archival method. To liquidate the past and to meet the clean future, oral history is very important.

Key Words : Korean War, Traditionalism, Revisionism, Post-revisionism, Archive